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5. 16.(월)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 권진호 (044-202-7800)
		담당자	서기관 윤권상 (044-202-7864) 주무관 김재규 (044-202-7858)

이정식 장관, 취임 첫 인사는 9급 공채 출신 발탁!

- '95년 이후 27년 만에 9급 공채 출신 운영지원과장 임명
-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한 공정한 인사운영 예고

- 새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정식 장관은 첫 번째 인사로 운영지원과장에 9급 공채 출신을 27년 만에 발탁했다.
 -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취임 1주일 만에 첫 과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, 부처 내 인사를 책임지는 운영지원과장에 9급 공채 출신인 정병팔 과장('66생, 현 감사담당관)을 5. 17.(화)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.
- 운영지원과장은 13,000여명에 달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·교육 등 부처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로, 9급 출신 발탁은 '95년 이후 처음이다.
 - 그동안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들이 도맡아 왔었으며, 중앙부처 내에서는 손꼽히는 핵심 보직으로 분류된다.
- '21년 4월부터 감사담당관으로 재직 중인 정 과장은, '89년 부천시방 노동사무소에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30년 넘게 본부와 지방관서를 오가며 정책수립과 집행업무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실무형 전문가로 알려졌다.

- 일자리·직업훈련 등 전문분야 외에도 기획재정, 운영지원, 감사 등 행정지원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,
-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처리와 함께, 상·하·동료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능력 및 책임감·헌신성은 부내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다는 평가다.
 - 특히, '20~'21년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재직 당시 전국 12개 노동위원회 직원 인사를 총괄하며,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.
- 이번 인사를 접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새 정부 인사원칙인 ‘능력과 전문성’이 부처 과장급 인사에 반영된 것이라 평가하면서,
 - 앞으로 연공이나 학력, 출신 지역, 입직경로 보다는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 기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.
- 이정식 장관은 “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공직 인사에서의 공정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”라며,
 - “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,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, 국정현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(붙임) 신임 운영지원과장 주요 약력



인적 사항

성 명 : 정 병 팔 (鄭 炳 八)

출생년도 : 1966년 (56세)

직 급 : 서기관 (4급)

**학력 사항**

1985년 영흥고 졸업

1998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

2003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

주요 경력

'21. 4.~'22. 5.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

'20. 1.~'21. 4.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

'19. 2.~'20. 1.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

'18. 5.~'19. 2.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소장

'16. 7.~'18. 5. 거제시(일자리희망센터) 파견

'15. 8.~'16. 7.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('16.7월 서기관 승진)

'08. 1.~'15. 8.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, 감사담당관실, 중부청 인천 고용센터 취업지원2과장,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, 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('08.1월 행정사무관 승진)

'89.10.~'08. 1. 노동부 고용정책팀, 총무과, 인천북부노동사무소 산업 안전과,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·관리과, 노동부 감사 담당관실, 인천지방노동청 관리과 등(9급 공채)